커피향에 흠뻑, 불교에 흠뻑

日절카페 인기…포교에 효과적

박영빈 객원기자

카페를 찾아 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을까? 일본에 새롭고 효과적인 포교방식의 하나로 '절카페'가 자리 잡아 화제다.

일본 인터넷 매체 '토노엘'은 4월 27일 도쿄 시부야에 소재한 '절카페 다이칸야마(寺カフェ代官山)'를 소개했다. 도쿄 교외의 사찰 신교지(信行寺)에서 운영하는 이 카페는 지난 2003년 개업 후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카페 내부에는 불교기의 오색 차양이 쳐져있고, 카페 가운데엔 아미타불을 모신 불단이 있다. 또한 인테리어도 불화나 연꽃으로 꾸며진 불교색이 강한 카페다. 이 카페의 가장 큰 특징은 늘 상주하는 스님이 언제나 손님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20~40대의 여성들이 찾아 상담한다고 한다. 미리 신청을 하면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사경과 합장주 만들기는 물론 각 절기와 불교명절에 따라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


절카페의 실내 모습.


절카페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 스님.


불단이 모셔져 있는 카페 내부.


불교의 오색기가 걸려있는 카페 외관.


절카페서 먹을 수 있는 비건 샐러드.

중앙엔 불단에 아미타불 모셔
인테리어는 불화나 연꽃으로
스님이 손님 고민 상담해주고
사경 · 합장주 만들기 이벤트도

카페의 메뉴 역시 사찰음식에서 따온 메뉴들이다. 디저트는 일본요리에서 사용되는 전통 감미료를 사용해 만들었다. 점심에는 예약제로 비구니스님이 만든 비건(vegan) 채식을 맛볼 수도 있다.

신교지의 대중 스님들은 '새로운 형태의 포교활동'이라는 목표로 의기투합해 이 절카페를 만들 수 있었다. 신교지의 주지 스님인 아사노 코키(淺野弘毅) 스님은 "처음엔 법회나 제사 이외에 사람들이 절에 자연스럽게 오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사람이 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절이 거리로 나가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카페를 생각했다고 전했다.

아사노 스님은 "현대 불교가 계속 절 집 사이에만 움직이는 것은, 아무래도 사찰경영의 입장에서 포교보다 법회나 제사를 중심에 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시대와 환경에 맞춰 불교도 새롭게 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절카페의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은 스님과의 상담이다. 미리 신청을 하고 시간을 맞추면 1시간 가량 카페에 나와 있는 스님과 차를 마시며 상담을 할 수 있다. 지명도가 높은 스님은 심리 카운슬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야마구치 스님과 교도소 교정위원을 지낸 미우라 스님. 상담 경험에 우러나오는 답변과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모습에 반해 카페의 단골이 된 손님들도 다수라고 한다.

미우라 스님은 "옛날 일본에는 '뛰어드는 절'이란게 있었다. 남편이나 시가의 학대에 시달리던 여인들이 도망쳐 오면 이들을 보호해주고 문제를 중재해 주던 절이다. 이 카페는 현대의 뛰어드는 절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상담의 90프로가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라며 "답변을 하기 전에 모든 이야기를 듣는다. 종종 이야기를 하던 중에 스스로 답을 찾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미우라 스님은 먼저 상대를 배려하는데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인기 상담사인 야마구치 스님도 "스님이 상담을 해준다고 하니 점을 봐준다는 생각으로 오는 사람도 많다. 일단 모든 이야기를 정성껏 들어준다. 모두 고민을 가지고 오는 이웃 아니겠는가"라고 웃으며 "종종 진지하게 불교에 관심을 두고 오는 분들이 있다. 서로가 가진 불교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데에서 수행이 된다"며 절카페의 포교활동도 함께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 여행시 잠시 쉬다가세요"

불교 웰빙센터
새로운 휴양공간으로 각광

뉴욕 북부에 새로 지어져
$1700만 2만 2천ft² 규모
숙소 · 식사 제공해 주고
명상과 부처님 법 수업도

뉴욕의 새로운 휴양공간으로 불교 웰빙센터가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라이언스 로어'는 5월 7일 뉴욕에 뉴욕 북부에 많은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웰빙센터가 생겼다고 보도했다. 1700만 달러(약 189억 원) 이상의 금액이 투자된 이 센터는 2만 2천 ft²(약 620평)의 규모로 지어져 수많은 휴양거리를 제공한다.

이 센터를 만든 퉁람 걀와 린포체는 티베트 불교의 카르마 카규 종단 안에서 다르마카야(Dharmakaya)와 퉁람 법맥의 수장이다. 퉁람 걀와 린포체는 이 장소를 방문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수업도 들을 수 있고, 속세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불교웰빙센터의 조감도.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센터는 큰 규모만큼 많은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다. 센터의 중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큰 명상실이 있다. 거대한 불상도 마주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도서관, 영빈관,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에는 32개의 개인 침실과 식당, 부엌 등이 있다. 음식은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하며 재료는 현지에서 유기적으로 조달한다. 최대한 환경 친화적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이 외에 신체 건강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육체의 건강 없이는 정신도 건강할 수 없다는 생각서 기인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센터에는 항상 요가 수업이 있다. 센터서 자원봉사를 하는 트레바니아 헨델슨은 "매번 명상을 하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먼저 한다. 또한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20분간 유산소운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퉁람 걀와 린포체는 2004년에 하버드 대학서 인도-티베트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과 법(法)을 나누고 싶었는데 하버드서 공부를 하면서 뉴욕이 이런 법을 나누기에 좋은 장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본적으로 이 센터는 많은 사람들과 부처님의 법에 대해 나누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상실에서 린포체와 명상을 하는 관광객들.

걀와 린포체는 '타임스 헤럴드 레코드'와의 인터뷰서 이 센터는 불교 '교리'보다는 '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낮춰주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그리고 스스로 그들이 연민과 깨달음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180개 복장물 품은 문수보살상

일본 나라 박물관 CT서 발견

불상에 부처님 법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조성시기와 당시 문화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인 복장물이 가득한 문수보살상이 일본에서 발견돼 화제다.

일본 '나라신문'은 5월 8일 문화재 조사를 위한 CT촬영 중 많은 복장물의 불상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사진〉 복장물이 발견된 불상은 나라시의 홋케지(法華寺)에 모셔져 있던 문수보살 상이다. 높이 73cm의 목불로 가마쿠라 시대(13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국립 나라박물관은 2012년 문화재 점검을 위해 1차 조사를 실시했고, 이때 불상의 내부에 복장물이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지난해 박물관에서 문화재용 CT와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했고, 불상안에 수많은 복장물들이 들어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복장물은 크게 머리와 몸의 두 부분에 나뉘어져 머리에 약 30점, 몸에 약 150점의 유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몸에는 대부분 경전으로 추정되는 두루마리와 책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특히 일본에서 주목하는 것은 머리 부분에서 발견된 사리장치다. 이는 여의주 모양으로 만든 '화염보주형사리용기'라고 불리는 작례로 판명됐으며 수정과 금동으로 추정된다.



박물관 측은 "일본서는 가마쿠라 시대에 들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보시금을 모아 불상을 제작했다. 그 결과 각자의 발원문이나 사경 등의 복장물이 불상에 대량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 불상처럼 사리기가 들어간 것은 매우 드문 예"라고 밝혔다.

홋케지의 주지 히구치 쿄코 스님은 "작은 불상 안에 이렇게 많은 복장물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에 놀랐다. 앞으로도 문수보살님을 소중히 모시고 예경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불상을 개봉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문수보살상은 당분관 나라 박물관에서 특별전시 될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교구 종무원

– 승 정 원 –
승 정 금 용

– 중앙원로회의 –
부 의 장 금 용
의 원 지 허
의 원 남 파

– 중앙종회 –
수석부의장 시 각
법사분과위원장 법 진
재경분과위원 승 범
법사분과위원 보 각

– 지방원로회의 –
의 장 지 암
부 의 장 금 용
의 원 원 명
의 원 도 수
의 원 금 명
의 원 성 천
의 원 지 허
의 원 설 봉
의 원 남 파
의 원 현 공
의 원 수 진
의 원 혜 림

– 종 무 원 –
종무원장 월 인
부 원 장 여 허
총무국장 보 산
교무국장 진 명
재무국장 명 휴
문사국장 봉 정
규정국장 도 허
사 무 장 조아라

– 지 방 종 회 –
의 장 원 일
수석부의장 현 법 응진
차석부의장 승 시 범각
의 원 성 보 법현
의 원 자 지 원명
의 원 원 고 문성
의 원 지 보 일공
의 원 도 풍 각안
의 원 승 휘 암 전법사

■ 주 소 : 광주 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85-15
■ 전 화 : 062)375-1820 팩스 062)381-0944